



## 더 나은 공동의 집을 지향하며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영화배우 한 명을 섭외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관찰카메라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긴장을 푼다는 이유로 사용하지도 않을 수도꼭지를 세계 틀어 놓고, 물티슈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쉽게 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본 아이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는 반면, 어른이기 때문에 다른 말은 못하고 수긍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나 하나 아낀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영화촬영장에서는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사용한다.’라는 식의 합리화에 설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남이 끝나고 그 배우가 자리를 뜨자 아이들은 한결같이 곧바로 수도꼭지부터 잠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낭비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기 위해 배우가 행한 연기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돌아와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서 그는 한 아이에게, 자신의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켰던 것 같아 무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아이에게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좋은 지구를 물려주고 싶다는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감사하고, 저도 앞으로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라나는 아이들, 더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구 환경에 대해 어떤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을까?’ ‘사람들이 좀더 환경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주교님들께서는 2020년 발표하신 특별 사목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에서 “오늘날의 기후 위기와 어머니 지구의 울부짖음은 교회가 수행해야 할 복음화 사명과 사목 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좀더 좋은 지구를 만들기 위한 지향으로 세상에 올바른 생각과 선한 영향을 전해줄 때, 우리의 신앙은 호소력 있는 참된 ‘기쁜 소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참다운 신앙은 (...) 언제나 세상을 바꾸고 가치를 전달하며 이 지구를 이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물려주려는 간절한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183항)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년간 이어온 <함께 알아가는 생태신학>이 우리의 지구를 하느님의 피조물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더 나은 공동의 집으로 후대에 아름답게 물려줄 지향을 복돋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하며, 연재를 마칩니다. 부족한 글을 관심 갖고 읽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원고 윤문과 편집에 애써 주신 홍보국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이다한 스테파노 신부  
끈벱두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함께 알아가는 생태신학>을 연재해주신 이다한 스테파노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홍보국-

